

이 달의 과학기술자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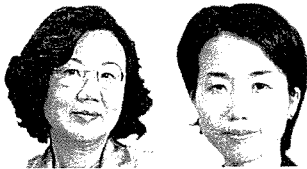
김선창(金善昌 · 47) 한국과학기술원 생물학과 과 교수가 한국과학재단이 수여하는 '이 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교수는 '생물산업용 인공균주'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공균주란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 생물공학 산업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유전체만을 가진 균주다.

미식물학회 펠로상에



황병국(黃炳國) 고려대 생명환경과학대학 생명산업과학부 교수가 한국 최초로 미국 식물병리학회 펠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황 교수는 30년간 첨단 생명과학기술을 이용, 친환경적으로 식물의 병을 치료해 세계 식량증산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8월 10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펠로상을 수상한다.

로레알 여성생명과학상에



김영중 서울대 약대 교수(57), 김홍희 서울대 치대 교수(39), 유경자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66)가 제2회 로레알 여성생명과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영중 교수

는 서울대에 약초원을 조성해 멸종 위기에 놓인 국내 자생식물의 보전에 기여했으며, 김홍희 교수는 뼈형성증과 관련된 파골 세포를 연구해 신약 개발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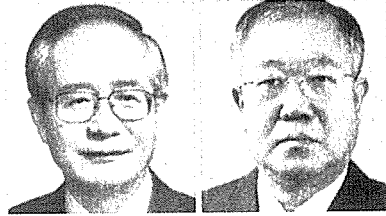
세계 로봇틱스연맹상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전산학과 변중남 교수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제34차 국제 로봇 심포지엄에서 2003년도 조지프 엔겔버거 로봇틱스상 교육부문을 수상했다. '조지프 엔겔버거 로봇틱스상'은 국제 로봇틱스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이 근대 로봇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조지프 엔겔버거 박사를 기리기 위

해 제정한 상으로, 로봇기술 확산에 공로가 큰 과학자에게 주어지는 권위있는 상이다.

성곡학술문화상 수상



차하순(73 · 사진 왼쪽) 서강대 명예교수와 박재갑 원장(55 · 사진 오른쪽)이 '제18회 성곡학술문화상'을 수상했다. 차 교수는 역사연구 방법론을 한국적 풍토에 정착시켜 한국 서양사학계의 발전에 기여했고, 근대 평등주의의 사상사적 기반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형평' 개념을 정립한 공로가 인정됐다. 차 원장은 암유전자 클리닉을 개설해 유전성 중앙 환자의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등 유전성 중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암 예방·조기 발견에 기여했다.

화학무기금지기구 자문위원회



이영철(李永喆)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내 과학자문위원회(SAB) 위원으로 선출됐다. 이 수석연구원은 서울대 공대 출신으로 생기원 청정생산기술 본부장을 지냈고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국내 이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SAB는 화학무기금지협약과 관련한 과학·기술·이슈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1998년

구성된 비상설기구이다.

통신분야 세계기술상 받아



전길남(全吉男 · 60)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전산학과 교수가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03 세계기술정상회담(The 2003 World Technology Summit)'에서 통신기술 분야 '세계기술상(World Technology Award)'을 받았다.

이 상은 '세계기술네트워크협회'가 주관하는 상으로 통신기술 등 20개 분야에 걸쳐 세계 기술발전에서 공로가 큰 개인과 기업을 선정, 매년 시상하고 있다. KAIST는 '술 교수가 오랫동안 인터넷 분야에서 혁신적인 일을 추진해 온 공로와 학술적 업적을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

정리\_미디어사업팀